

지방소멸 공동대응 '맞손'

진안군-대구 남구, 기관 공공시설 공동 이용·친선교류확대 등 협력키로

진안군은 18일 대구 남구청과 지방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남구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자매도시 관계인 진안군과 대구 남구가 지정됨에 따라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 가속화 및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대응하는 의지를 같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추진 됐다.



진안군은 18일 대구 남구청과 지방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남구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의 주요 골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관의 공공시설 공동 이용,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양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확대다.

진안군-대구 남구 등 2개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행

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기금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사업 시행을 추진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 등 도·농간 인구 활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협약

을 계기로 진안군과 대구 남구가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가면서 폭넓게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호남 화합, 동서 화합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진안군과 대구 남구가 지방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

5인 이상 모임·단체 등 주민 누구나 자발적 참여 가능

무주군은 다음달 2일까지 올해로 3년차인 '2022년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도시지역(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내에 주소나 사업장, 직장, 학교 등 생활기반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한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력 재생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신청자 접수를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제해결 및 개선사업,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 무주군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모든 분야의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팀(단체)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 중 서류 심

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지속가능성, 적정성을 심사하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민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무주가 도시재생이 더 많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청소년 문화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 문화강좌'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운영하며 참가비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이다.

운영프로그램은 ▲5월 4일 왕 카네이션 만들기(12명) ▲5월 6일 카네이션 모양 쿠키(20명) ▲5월 11일 우정

팔찌 만들기(16명) 총 3개 활동으로 구성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장수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신청가능하다.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좌별 수강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운영시간 전·후 강의실 방역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해당 프로



그림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원응대 공직자 치유방안 마련

무주군, 심리검사 진행 '현재 상태 파악·대처 도움됐다' 반응

무주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종합검사 결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반응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주군이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과 민원인 상대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측정·검사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직원 '심리검사' 결과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진 검사는 총 21개 부서 218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HRV(자율신경균형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병행, 진행됐다.

심리검사는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해 본청과 읍·면 일과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 검사에서는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이 30%대, 경도 위험군과 보통비율이 70%를 차지했으며, 스트레스 수치는 위험군(50점 이상)이 37%로 나왔다.

검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검사와 기본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심리검사 사업을 진행한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향후 검사결과를 정밀 분석해 전문 상담가 교육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결과 수치에 따라 신규 직원들의 민원 부담이 많은 부서 배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의뢰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진안군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해안·하천 등에서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관내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295개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KAIS를 활용해 지점번호 표기 오류, 망실, 훼손, 중복 설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훼손·망실·표기 오류 판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을 조사하여 추후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지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지점번호판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GPS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를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해 군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령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운영

진안군이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12개소에 60면에 '고령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군은 앞서 지난 11월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은 진안군이 마주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 어르신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해 운영한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당한 교육이수인정기간으로 공천배제, 재심요구"

서정호 무주군수 예비후보

서정호(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모임은 지난 15일 전북도당을 찾아 '교육이수관련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부당한 교육이수인정기간으로 공천배제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정호 예비후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제27조(자격)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이미 당의 적격심사를 통과해(3/19) 무주선관위에 공식 예비후보등록을 함결 없이 마쳤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지난 3월 25일 중앙당(2020년 1월 1일부터)의 인정기간과 달리 2022년 1월 14일부터 온라인교육 이수 인정기간으로 '당규를 위반'해

피선거권이 없음을 전화 문자메시지(4/11)를 통해 전달 받았다.

이에 서 예비후보는 4월 11일부터 즉각 도당과 중앙당에 문제를 제기하고 4월 15일 전주시 소재 법무법인 온고을에서 "이는 정당 공천의 자율성을 넘어 그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 중 당규개정 이후 16시간 이상의 당내교육을 이수한 것이 당규에 부합한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정호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타 시·도당과 달리 유독 전북도당만이 온라인 교육이수 인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피해를 본 20여 명의 도내 기초단체장과 도 및 시의원 후보자들과 연대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6.1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기 위한 경선연기와 문제해소를 위한 중앙당의 재심판결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며 사측생(死闘性)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